

나의 서원 나의 신행 <17>

# 봉사는 수행... 혜택 받은 가피

## 봉사단체 '작은손길' 김광하 대표



김광하 대표는 ... 연세대 상과대학 졸업 후 백봉 김기추(1908~1985) 거사로부터 참선을 배웠다. 1980~87년 다국적 기업인 '필립 브러더스'에서 근무하다가 1987년 무역회사인 도이상사(주)를 창업했다. 1997년부터 경부선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을 후원하고 봉사활동에 나섰다. 2004년 봉사단체인 '작은손길'을 설립하고 노숙자 시설인 '시명당의 집'을 개원했다. 현재 작은손길 대표, (주)도이상사 사장, 한국빨리리성전협회 편집위원 등을 맡고 있다.

부처님 가르침을 의지해 청정한 삶을 살고자 서원한 이들을 불자라 말한다. 한국 불자들은 통념적으로 1000만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지만 이들 모두 진정한 불자의 길을 걷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부처님 당시 인도 꼬살라국의 권력층들은 불자로서 자신들의 삶을 이렇게 말했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왕을 모시고 여러 공녀들과 더불어 놀았지만 항상 세 가지 일을 조심했습니다. 첫째 바른 길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이고, 둘째는 집착할까 두려워하는 것이며, 셋째는 거기에 넘어지고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모든 재물은 늘 세존과 출가자, 재가자들과 함께 쓰며, 제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바른 사유를 실천했고, 자신이 소유한 재물을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해 노력했다.

봉사단체인 작은손길(사원의 집) 김광하(60·(주)도이상사 사장) 대표는 10여 년 동안 작은손길을 이끌며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실천해 왔다. 김 대표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혜택 받은 사람이란 뜻이다. 그건 부처님의 가피다. 봉사를 통해 명예를 추구한다면 고행이지만, 나에게 봉사는 단지 수행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깨달음으로 가고자하는 서원**

9월 5일 서울 신설동 풍물시장 인근에서 김 대표를 만났다. 골목골목을 돌아 허름한 2층 단독주택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 그는 환한 웃음을 띠며 “이곳이 작은손길입니다”라고 소개했다.

그는 “누추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집안 곳곳을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거실을 끼고 있는 커다란 주방에서부터, 쌀, 과일 등을 보관하는 창고, 주말이면 네팔이주민들의 아지트가 되는 안방까지, 소중히 간직했던 보물상자에서 보물을 하나 둘씩 꺼내놓듯 집 구석구석을 소개했다.

김 대표는 이곳에 매주 화요일, 금요일, 주말마다 들려 물품을 운반하거나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차량 운행 봉사를 담당하고 있다. 작은손길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 종로 3가 지하철역 근처에 계신 400여 어르신들에게 차와 사랑 등을 보시고,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저녁에는 을지로입구역 근처에서 200여 노숙자들에게 음식 등을 보시한다. 또 매주 수요일마다 독거노인들에게 반찬배달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탈북청소년들에게 장학금 전달 및 사진 교육을 통한 재능보시, 외국인노동자들에게는 주말 컴퓨터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부모를 찾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임양정년들에게 숙식제공에도 나서고 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봉사활동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오전에는 방앗간에 말린 떡을 찾아 다른 봉사자분들과 함께 을지로, 종로를 돌며 커피와 함께 나눠 드려요. 그렇게 수 백 명에게 나눠 드리고 주병을 청소하고 다시 돌아오죠. 그게 제가 하는 일의 다예요.”

김 대표는 현재 중소 무역회사의 사장이다. 하지만 그는 평일에도 어김없이 자신의 시간을 쪼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1997년 로타리클럽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심한 매질과 노동력 착취를 당한다는 김 해성 목사의 강의를 듣고 그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후 경제정의실천불교 시민연합회를 통해 2년 간 후원을 시작했다. 그러다 2002년 서울 김포에 외국인노동자 상담소를 꾸려나 가다 2004년 ‘작은손길’을 설립해 본격적인 현장 봉사활동에 나섰다.

“처음 ‘작은손길’을 설립하면서 가족들의 반대가 심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설득시키기 위해 제 나름대로 원칙을 세웠죠. 첫째는 회원모집을 절대 하지 않는다. 둘째는 지자체 및 국가의 어떠한 후원도 받지 않는다. 셋째는 절대 상(相)을 내지 않는다였죠. 제 힘으로만 올곧게 한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언젠간 뜻이 같이 할 사람이 나타날 거라 믿었어요. 오로지 수행으로서만 이 일을 하겠다고 가족들을 설득시켰죠. 그렇다고 제 재산 모두 털어서 이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처음엔 회원이 10여 명도 안됐지만, 현재는 알음알음 알고 찾아와 주셔서 130여 명이 있어요. 제가 정말 부처님의 가피를 입은 거죠.”

자들과 어르신들에게 다가가 음식을 나눠주고 돌아오는 게 전부다.

“간혹 학생들이 찾아와 ‘여기서 봉사활동을 하면 도장 찍어주시나요’라고 물어요. 그러면 바로 돌아 가라고 말하죠. 상(相)을 내기 위해 찾아오신 분들은 얼마 버티지 못하고 나가세요.”

김 대표가 ‘무주상보시’를 고집하는 이유는 이것이 진정한 불교포교라 믿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 대표는 “‘무주상보시’를 실천할수록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실감한다”고 말했다.

“우리 모두가 깨달음의 세계에 드는 것이 저의 서원이예요. 깨달음은 인간이 두려움, 미움, 고통 없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깨달음을 봉사를 통해 실현하고 싶어요.”

실제로 김 대표는 10여 년 간 ‘무주상보시’를 실천하면서 서로 경계 없는 만남이 무엇인지 느꼈다고 설명했다.

“처음 저희가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 줄 때 사람들의 경계가 심했어요. ‘저들이 우리한테 왜 음식을 주는거지’라는 의심이 든 거죠. 그런데 저희는 합장만 하고 음식을 나눠주곤 그대로 돌아와요. 그렇게 꼬박 10여 년을 하니 사람들의 경계가 허물어진다라는 걸 느꼈죠. 실제로 타 종교에서는 음식을 나눠주기 전 종교적 의식을 오랫동안 진행해요. 그러다 보니 그들도 ‘아, 내가 이 찬송가만 부르면 음식을 먹을 수 있구나’라는 조건이 성립되는 거죠. 하지만 저희들에게 ‘저들은 우리에게 어떤 의도 없이 이 음식을 나눠주는구나’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어떤 조건도, 경계도 없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진정한 부처님 깨달음의 길로 가는 길이라 생각해요.”

김 대표는 얼마 전 자신이 겪었던 일화를 소개했다.

“한 탈북학생이 그러더군요. 처음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아줌마, 아저씨들이 잘해줄까’ 고민했대요. 그런데 1~2년이 지나도 아무런 대가없이 자신에게 한 결같이 대하는 모습을 보고 ‘나중에 어른이 되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살라는 뜻이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봉사자들이 감동받았죠.”

“작은손길”은 ‘무주상보시’의 의미만 이해한다면 종교와 상관없이 누구나 회원으로 맞고 있다. 2년 전부터는 가톨릭 신자인 회원의 소개로 교회에 매달 쌀 80kg씩을 지원하고 있다. 이 교회는 맛별이 부부 자녀들을 위해 무료로 공부방을 열고 저녁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김 대표는 ‘무주상보시’의 원칙을 지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사람이다 보니 어려운 고비가 오면 ‘누가 나를 안 도와주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그때마다 김 대표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더욱 자신을 점검했다. 또한 사석에서 만난 지인들에게도 절대 자신이 봉사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도와주길 바라는 마음이 들 때 내려놓는 게 필요해요. 혹시나 형편이 나은 사람이 후원금을 적게 주면 ‘왜 저 사람이 이것밖에 돈을 안내지’라는 분별심이 들때도 있었죠. 그럴 때 마다 내 자신을 경계해요. 또 명예욕도 버려야 되죠. 그래야 진정한 피안으로 갈

### 2004년 '작은 손길' 설립

### 10여년 깨달음으로 가는 봉사

### 회원모집 안하고

### 국가후원 안받고

### 상 안내기 가족과 약속

### 어르신 노숙자 독거노인 이주민 탈북자

### 눈이오나 비가오나 만나는 이웃

“작은손길”은 오로지 회원들의 후원금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김 대표는 “최근 불광사, 봉은사, 금륜사 등에서 탈북학생들을 위한 장학금도 지원해 주 운영에 큰 어려움은 겪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눌수록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김 대표는 “작은손길”을 이야기할 때마다 ‘봉사단체’가 아닌 ‘수행단체’라고 강조했다.

“‘작은손길’은 단순히 봉사만 하는 곳이 아니에요. 저희는 ‘무주상보시’를 실천하는 수행단체예요. 일반시민단체나 복지단체에서는 활동의 규모가 중요할지 모르지만 불자들에게는 마음을 살피는 수행이 근본이 돼야 해요. 불교단체의 활동은 하심(下心)이 중요해요. 마음을 낮출 때 관용과 화합이 이뤄지기 때문이죠. 봉사활동이라도 자신을 높이는 마음이 있으면 남과 경쟁하느라 바쁘고 각박하게 마음을 쓰게 돼요.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주는 사람도 없고 받는 사람도 없는 마음이 곧 불교의 겸손이죠. 봉사 활동은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이예요. 자비심을 놓지 않고 겸손을 지키며, 보시를 통해 만날 때 부처님의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김 대표의 이런 원칙 때문에 회원들도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상(相)을 내세우지 않는다. 조용히 노숙

## 옴마니반메훤 금강시계

### 만사형통 소원성취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

부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리신 영험의 비방이 옴마니반메훤 육자대명왕진언으로 항상 외우고 간직하면 모든 문제가 놀랍게 해결된다고 설하셨다. 옴마니반메훤은 부처님 영험으로 중생들의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고 승리하게 해주신 영험의 진언이다.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일들이 신통토통하게 해결 된다는 옴마니반메훤을 마음속으로 흠모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신통하게 묘한 일이 일어나 해결된다. 금강시계 앞면에 동서남북에서 북이 들어오며 만사형통하게 육자대명왕진언 “옴”자를 넣었고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하며 소원성취하는 행운의 법구가 금강시계 뒷면에 부착되어 있다. 모든 일이 신통하게 잘 풀리는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훤 금강시계는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며 고급무브먼트와 고급문자판을 사용하고 방수처리와 금강처리한 금강시계로 선물로도 품격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가격: 남성용 75,000원 / 여성용 7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동행계좌: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은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모든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북

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북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동행계좌: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 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중고 불경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폐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걸음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집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안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는데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첫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첫손님으로 장사를 힘있게 집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 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집귀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령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있어 풀위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슬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사할스님 20%할인))  
전화: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동행계좌: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신앙, 기득,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호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합원,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점, 방앗간, 공방, 주유소, 신채소와 위생 사업장 등 여러 사업장의 비방

# ‘경계없는 만남’ 무주상 보시



김광하 대표가 봉사자, 탈북학생들과 함께 진행한 여름캠프에서 즐겁게 게임하고 있다.



서울 신설동에 위치한 '작은손길'

수 있거든요.”

이밖에도 ‘왜 하필 부랑자와 노숙자를 돕느냐’는 주변의 질타에 한동안 속앓이를 한 적도 있다. 처음 ‘작은손길’은 노숙자쉼터로 출발했지만, 인근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6년 전, 현재 자리한 주택으로 새로 터를 잡았다.

“노숙자는 엄밀히 부랑자와는 달라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노숙자로 추락하기까지 대개 2-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IMF이후 이런 노숙자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들은 직업을 잃거나 빚에 쫓겨 가정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값싼 고시원을 드니다 결국 노숙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또 추위에 떨다보니 몸도 성한 곳이 없고, 정신질환을 앓는 분들도 많죠. 대개 우리가 아는 부랑자는 100명에 10명도 안됩니다. 저는 그분들에게도 부처님의 깨달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 초기 경전 보급, 저서활동도 활발 아침·점심·저녁 '자기 점검'

## “부르지 않아도 먼저 벗이 되자” ‘유마경’ 첫구절 가슴에 새겨

이렇게 말했다. 그는 매일 아침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낮에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저녁에는 ‘오늘 내 자신이 어땠는지’ 점검한다.

“《유마경》의 첫 구절에 ‘사람들이 부르지 않아도 내가 먼저 벗이 되어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항상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불교는 세상의 한 줄기 빛입니다. 저는 봉사라는 수행을 통해 두렵고, 경계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진리에 다가서고 싶습니다.”

이런 김 대표에게도 최근 고민이 하나 늘었다. 본래 10년간 운영하기로 했던 ‘작은손길’이 어느새 10년을 코 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제 화두가 ‘작은손길’을 언제까지 운영하느냐입니다. 처음 가족들과 딱 10년간 하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세월이 이만큼 흘러 이르신들이 제 ‘행님’ 벗이 됐죠. 앞으로 언제까지 운영할지는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작은손길’은 누구에게도 물려주지 않고 조용히 문을 닫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작은손길”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저만의 수행방식이었죠. 이걸 정신적인 문제예요. 이 자체가 정의니까요. 만약 누군가 ‘작은손길’ 같은 단체를 운영한다면 그분만의 방식으로 접근해야죠.”

《하연경》 ‘보현보살행원품’에는 “깨달음은 중생에게 속해 있는 것이니, 만약 중생이 없다면 모든 보살들이 끝내 위 없는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는 구절이 나온다. 못 생명의 고통과 자비에서 출발하지 않고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깨달음은 적어도 부처님의 위없는 깨달음이 아니다.

김 대표는 중생들과 수행공동체를 실현하며 자신을 낮추고, 선(善)을 향해 노력을 기울였던 부처님의 삶처럼, 오늘도 불자로서 부처님처럼 살아가는 수행의 길을 걷고 있다.

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일 아침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낮에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저녁에는 ‘오늘 내 자신이 어땠는지’ 점검한다.

“《유마경》의 첫 구절에 ‘사람들이 부르지 않아도 내가 먼저 벗이 되어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항상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불교는 세상의 한 줄기 빛입니다. 저는 봉사라는 수행을 통해 두렵고, 경계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진리에 다가서고 싶습니다.”

이런 김 대표에게도 최근 고민이 하나 늘었다. 본래 10년간 운영하기로 했던 ‘작은손길’이 어느새 10년을 코 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제 화두가 ‘작은손길’을 언제까지 운영하느냐입니다. 처음 가족들과 딱 10년간 하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세월이 이만큼 흘러 이르신들이 제 ‘행님’ 벗이 됐죠. 앞으로 언제까지 운영할지는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작은손길’은 누구에게도 물려주지 않고 조용히 문을 닫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작은손길”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저만의 수행방식이었죠. 이걸 정신적인 문제예요. 이 자체가 정의니까요. 만약 누군가 ‘작은손길’ 같은 단체를 운영한다면 그분만의 방식으로 접근해야죠.”

《하연경》 ‘보현보살행원품’에는 “깨달음은 중생에게 속해 있는 것이니, 만약 중생이 없다면 모든 보살들이 끝내 위 없는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는 구절이 나온다. 못 생명의 고통과 자비에서 출발하지 않고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깨달음은 적어도 부처님의 위없는 깨달음이 아니다.

김 대표는 중생들과 수행공동체를 실현하며 자신을 낮추고, 선(善)을 향해 노력을 기울였던 부처님의 삶처럼, 오늘도 불자로서 부처님처럼 살아가는 수행의 길을 걷고 있다.

글=이은정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동국대 명예교수

## 질경이

길을 걷고 있었다. 건너편에 사람이 보인다. 인도에 앉아 있는 사람이다. 인도에 사람이 서 있거나 걷고 있다면 몰라도 앉아 있는 양이 기이하여 그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가까이 가 보니 한 남자가 보도블록 사이를 비집고 올라온 풀을 뜯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러고 있는냐고 말을 건네기도 조심스러운 형색이었다. 얼굴에 핏기는 가신지 오래인 듯 하고 손등에 심줄마저도 병마에 지쳐 버린 듯 자취를 감추었다. 그의 행위는 아마도 이래서가 아닐까 한다. 남은 삶이라도 만인이 다니는 길을 내 손으로 단장해 놓고 싶다는 인간의 원초적 마음이 발동했노라고.

그가 뽑고 있는 풀은 내겐 어린 시절부터 눈에 익은 것이다. 이름은 질경이다. 질경이는 토끼가 좋아하는 먹이기도 하다. 보통 사람들은 토끼풀 클로버를 제일 좋아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상추, 영경귀, 시래기도 좋아한다. 아무리 좋은 먹이라 해도 단비 맞은 풀잎은 싫어하는 것이 토끼의 식성인 듯하다.

길을 걷고 있었다. 건너편에 사람이 보인다. 인도에 앉아 있는 사람이다. 인도에 사람이 서 있거나 걷고 있다면 몰라도 앉아 있는 양이 기이하여 그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가까이 가 보니 한 남자가 보도블록 사이를 비집고 올라온 풀을 뜯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러고 있는냐고 말을 건네기도 조심스러운 형색이었다. 얼굴에 핏기는 가신지 오래인 듯 하고 손등에 심줄마저도 병마에 지쳐 버린 듯 자취를 감추었다. 그의 행위는 아마도 이래서가 아닐까 한다. 남은 삶이라도 만인이 다니는 길을 내 손으로 단장해 놓고 싶다는 인간의 원초적 마음이 발동했노라고.

그가 뽑고 있는 풀은 내겐 어린 시절부터 눈에 익은 것이다. 이름은 질경이다. 질경이는 토끼가 좋아하는 먹이기도 하다. 보통 사람들은 토끼풀 클로버를 제일 좋아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상추, 영경귀, 시래기도 좋아한다. 아무리 좋은 먹이라 해도 단비 맞은 풀잎은 싫어하는 것이 토끼의 식성인 듯하다.

질경이는 밟아도 죽지 않는다. 아무리 밟아도 해도 모습만 흐트러질 뿐 죽지 않는 풀이다. 질경이 질경이 ‘질경이’라고 부른다. 연전에 하버드 대학 세계종교연구소센터에 있을 때이다. 건물 뒤에는 한적한 공원이 있었다. 오가는 이도 많지 않고 습한 공원은 질경이가 다수 차지하고 있어 친근감이 더했다.

‘밭바닥으로 옮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에 독일에서는 ‘길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이라 하고 있는 것 같다. 사람이나 동물의 발에 붙어 새로운 거처를 찾아가는 모습에서 많은 생각이 솟는다. 인간은 본인의 의지로 가고 길을 정할 수 있지만 누군가의 발길에 의해 자신의 주거지가 정해질 수 없는 운명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오직 한 만이 쌓여 갈 것만 같다. 그러나 역경을 순경으로 바꾸어 살아가는 질경이의 삶에서 우리는 무한한 인내를 배워야 하고 한없는 넉넉함을 익혀야 할 것 같다.

출다고 양지바른 곳으로 옮겨가지도 못하고, 답답한 들 그늘진 곳으로도 마음먹은 대로 옮겨갈 수 없는 삶이 아닌가. 반면에 사람들은 춤과 덩고를 민감하게 알아채고 대처한다. 적당한 난방이며 냉방에 몸을 맡기기도 한다. 번식의 한 방법이 이름으로 고착되었으니 그 삶이 오죽할까. 길이 있는 한, 질경이는 밟혀서 자라고, 밟혀서 자기 씨앗을 옮겨 번식할 것이다. 그래서 질경이는 간혹 민초의 삶에 비유되기도 한다.

만방에 좋은 약으로 차전초(車前草)라 하고 그 씨앗은 차전자라하여 한방에서는 이뇨제로 쓰이고 눈병과 실사에 쓰기도 하는 귀요한 약재이다. 그 이름에 얽힌 일화가 흥미롭다.

한나라에 마부(馬夫)라는 장수가 있었다. 그는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로 떠났다. 산 넘고 강

## 질경이 생명력의 질경이 보며 생명 위대함과 존중 느껴

며 존재를 보존해가고 있다. 바위틈에 하늘거리고 있는 구절초의 모습에서도 생명의 존귀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비단 나만의 생각일까. 들끓는 유황천에서도 생명이 존재한다고 한다. 호극성균이라던가. 생명 있는 것들은 모두 위대한 것을.

유위법을 《금강경》에서는 여섯 가지로 비유하고 있다. 꿈과 같고 허깨비·물거품·그림자·이슬·번개와 같다고 하였다. 이 모든 것은 인과 연의 결합에 의해 생성과 소멸이 따른다. 하지만 무위법은 인연의 지배에서 벗어난다. 즉 천지인간의 도가 무위법인 것이다.

아스팔트 위에 위태롭게 핀 풀은 천지운행을 터득했기에 행인의 발길에 밟히거나 자동차의 바퀴에 짓이겨진다 한 들 원망이나 한이 서리지 않는다. 그렇게 되었다 한들 누구 하나 서둘러 힐링할 생각마저 내지 않아도 섭섭함이 없다. 아, 위대한 초목이여.

아늑다삼삼막삼보리의 삼보리는 각이 고운 깨달음이다. 무엇을 깨닫는다는 말인가. 곧 반란이 따른다. 생명의 근원이 깨달음이고, 깨달음의 근원은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존귀사상이야말로 불교의 제일 덕목이 아닐까 한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아름다움 있고 육신의 고통이 따르다 해도 질경이의 삶을 견주어 보면 큰 위안이 되고 건강한 삶의 것밭이를 맞게 되리라.

대학시절 불교와의 인연

처음 그가 불교와 인연을 맺은 것은 연세대 재학 시절 독서처를 가입하면서 부터다. 서울활동으로 불영사 수련대회에 처음 참가했다 스님들을 만난 후, 그는 불교에 점차 관심을 가졌다. 이후 대구 동화사 양진암에서 경봉 스님의 법문을 듣기도 하고 경전공부도 열심히 했다.

“젊은 시절, ‘깨달음’이라는 것에 대한 굉장한 환상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사회적으로 억압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통해 이 사회를 어떻게 타계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당시 법정 스님이 번역한 《숫타니파타》를 읽고 초기불교에 빠져, 휴학을 한 뒤 동국대 흥정식 교수가 강의하는 초기불교 강의를 도강하기도 했다. 그러다 1977~1978년에는 보림선원의 백봉 김기추(1908-1985) 거사를 찾아가, 1년 반 동안 백봉 거사의 시봉자로 지냈다.

당시 백봉 거사는 《금강경》 《유마경》 《선문염송》

## 수풀림 천/연/감/염/색

# 대나무숯베개

■ 제조 : 수풀림숯침대(주)  
■ size : 45. 22. 7.5cm size : 45. 22. 5cm  
■ 가격 : 천연베개 ₩110,000 천연베개S ₩85,000

## 맑고 청정한 대나무숯의 효능이 당신의 숙면을 약속합니다.

원적외선

음이온

항균

수분흡착

냄새제거

전자파차폐

아토피

수풀림대나무 숯 베개는 지리산 자락 청정지역의 왕 대나무를 채취하여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연구 개발한 숯 제조 기술로 1,000℃ 이상 고온에서 소성한 대나무 숯과 항균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굴참나무를 넣어 효능을 극대화한 천연베개입니다. 또한,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안감 걸감 모두 감으로 유명한 청도군의 특허품인 「천연감염색천」을 사용하여 아토피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수풀림대나무숯베개」는 100% 국내산으로 국내에서만 제작되는 친환경 인체친화형 천연 숙면 베개입니다.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정제용 대나무 숯은 몸속의 나쁜 피로물질을 흡착 정화시켜주는 효과가 탁월하여 숙면을 취하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뇌와 얼굴 피부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베개를 선택하실 때에는 자의적 효능보다는 객관적이고 과학적 정보에 근거한 베개가 좋은 베개입니다.

제품신청 080-300-1080

NAVER 대나무숯베개 구매바로

### 천연감염색 대나무숯베개의 효과

- \* 대나무숯은 차운 기운이 방출되어 머리를 맑게 하여 숙면을 취하게 됩니다.
- \* 대나무숯은 땀이나 침 등의 수분을 흡착하여 늘 뽁뽁뽁뽁 상태를 유지합니다.
- \* 대나무숯은 흡착기능과 정화능력이 뛰어나 몸속의 피로물질을 흡착 정화해줍니다.
- \* 천연감염색천은 항균효과와 아토피 예방에 탁월하여 편안한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 \* 너무 딱딱하지 않게 굴참나무 껍질을 넣어 일정한 경도로 제작되어 포근함을 유지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권해 드립니다.

두통/불면증/아토피/만성피로/목디스크/수험생/직장인/선물용/혼수용

■ 전국취급점도집 담당 : 010-3863-3557